

눈길 끄는 특·특·행·정

# 외로울 틈 없는 '신나는 라디오'

### 강진군 도암지사협, 독거노인 고독 예방 라디오 지원사업 호응

강진 도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특 튀는 서비스 '신나는 라디오'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도암지사협이 행복천사 릴레이 지정기부금을 통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역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 기기에는 최신 트로트, 가요, 민요, 찬송가 등 어르신들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또 조작성 간편하고 크기도 작아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기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은 흥겨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 감상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윤호석 도암지사협 위원은 "기기는 작지만 고독하기 쉬운 어르신들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큰 것 같다. 어르신들이 뜻밖의 선물을 받으며 기뻐해 주시니 뿌듯하다"고 전했다.



'신나는 라디오'를 지원받은 어르신이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한편, 도암지사협은 지난해까지 2년간 가정용 틀니소독기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 및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우울할 틈 없는 '내·안·愛'

### 함평군, 노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실태 조사 뒤 1 대 1 상담 진행

함평군이 65세 이상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노인 자살예방사업 '내·안·愛(내가 안아주고 사랑할게)'를 추진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 증상이 확산되면서 전국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지난해 대비 1.3명 증가했다.

이에 군은 최근 정신건강증진센터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 내 7개 대상 마을을 선정,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살 및 코로나19 관련 설문, 노인우울 선별검사, 삶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사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사전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1대 1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노화에 대한 인식, 우울과 수면, 우울과 통증, 우울과 규칙적 생활, 행복한 노년 등을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 보건소에서는 자살 예방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를



보건소를 찾은 어르신이 삶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함평군 제공>

위해 유관 기관과 협약,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선별검사, 찾아가는 정신건강사업 자문의 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 "소질·개성 꽃피우는 행복나주교육 실현"

### 취임 2년 맞는 김영길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질과 개성을 살려 꽃피우는 2000년 고도의 당당한 학생으로 이끌겠습니다."

오는 9월이면 취임 2년을 맞는 김영길(사진)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교육의 기본 방향을 '행복나주교육'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나주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과 공감의 정력한 행정,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 자치라는 5대 지표와 4대 역점과제를 설정해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 수업혁신 중심 교원 전문성 신장,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교육참여위원회 운영 등 학교 자치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의 기를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영하고 있다.

김영길 교육장은 "앞으로 창의·융합 SW 교육 강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 지원,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 목사고을 나주 역사·문화 자원을 역점과제로 정해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함평군 제조용 왕우렁 공급

함평군이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제조용 왕우렁을 공급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앞서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4709농가(5121ha)를 선정해 벼농사 제조용 왕우렁이 60

t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물량은 1ha당 12kg이며, 총사업비 6억 838만원을 투입한다.

왕우렁이 농법은 제조제 대신 왕우렁이의 초식 특성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농법으로 자연순환·생태계 보존·제조비용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효과적이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 장성 최초 일본인 전용학교는?

# 청운교가 '방구다리' 된 사연은?

### 장성군·문화원 '지명으로 보는 장성변천사' 발간

장성군이 최근 장성문화원과 함께 작업한 '지명으로 보는 장성변천사' <사진>가 책으로 나왔다.

읍·면 마을 이름부터 산과 강, 하천, 문화재, 인물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다. 1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 두 권에 담겼다.

수 대 째 살고 있는 지역민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마을 고유의 이야기들이 수록돼 매우 흥미롭다.

장성을 청운교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방구다리'로 불리게 된 사연은 이렇하다. 영천동 방울샘과 다리

교(橋)가 합쳐져 '방교다리'로 불리다가 변형됐다. 설과 방울샘 입구에 있어서 이름 지어졌다는 설 등이 전해진다. 방울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국가'의 길흉을 예견하는 영험한 샘물'로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가 남긴 가슴 아픈 흔적들도 찾아볼 수 있다. 장성중앙초등학교는 최초 일본인 전용 학교로 개교(장성공립심상소학교 1912년)했으며, 장성의 대표적인 공원인 장성공원에는 19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신사가 있었다. 최근 장성군은 두산그룹과 함께 장성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



공원을 조성했다. 수백 년 전 마을의 역사와 최근의 모습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점도 신선하다. 삼한시대 마을의 유래부터 시작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식이다.

부록편에는 장성군의 2020년 행정구역 현황을 비롯해 하천, 저수지, 교량 등의 현황이 정리돼 있다. 또 공장,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의 현황과 역대 장성 현감, 부사, 군수, 의회 의원 당선자 등도 기록으로 남겼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농특산물 한가득 '담양장터' 온라인 쇼핑몰 오픈

### 할인쿠폰 증정 등 행사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플랫폼 '담양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다.

담양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가 모여 설립한 담양장터(주) 법인이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공급기반을 갖춘 우수한 담양산 농식품만을 판매한다.

오픈을 기념해 구매왕 선발 이벤트와 신규가입자에게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무료 배송 쿠폰을 증정하고 첫 구매 시 15%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담양군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연계한 담양장터 홍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SNS 홍보, 라이브 쇼핑 판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담양장터 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장터 온·오프라인 쇼핑몰은 담양군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믿을 수 있는 담양군의 건강한 먹거리가 다채롭게 구성됐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한 기자 nyc@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